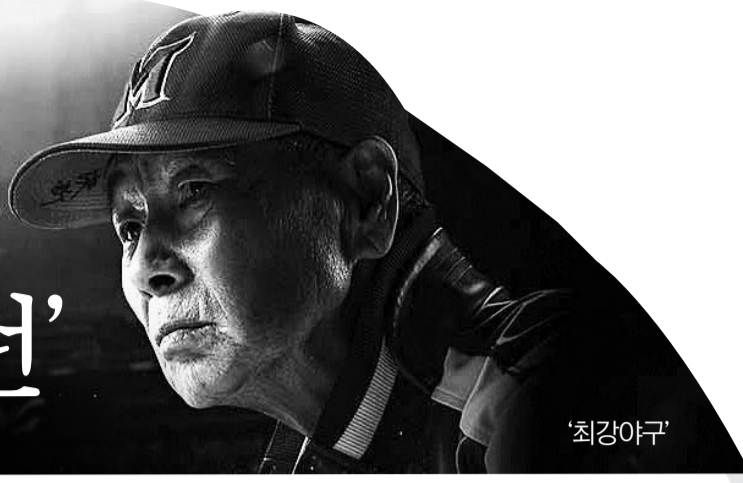


야구 예능 '홈런'



‘최강야구’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도전을 다룬 ‘최강야구’, 야구에 진심인 팬들의 응원을 담은 ‘전팬구역’, 프로야구 10개 팀을 대표하는 이들의 난장 토론 ‘야구대표자: 덕후들의 리그’.

치열한 순위 싸움으로 전례 없는 흥행몰이를 하는 프로야구의 인기에 힘입어 야구를 다룬 TV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예능 프로그램도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거나 연이어 신작이 나오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21일 콘텐츠 화제성 조사 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26주 동안 주간 화제성 조사에서 비드라마 부문 1위를 가장 여러번 차지한 프로그램은 다섯 차례 1위를 한 JTBC의 ‘최강야구’였다.

이 프로그램은 네 차례 1위를 차지했던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SNL코리아’와 JTBC-웨이브 공동 기획 ‘연애남매’를 제치고 주간 화제성 1위를 가장 많이 기록했다. 상반기뿐 아니라 하반기인 7월 둘째 주에도 ‘최강야구’는 화제성 1위를 기록했다.

‘최강야구’는 전직 선수들이 야구팀 ‘최강 몬스터즈’를 결성해 활동하는 과정을 담은 스포츠 예능으로, 채널A ‘도시어부’, ‘강철부대’ 등을 연출했던 장시원 PD가 JTBC로 자리를 옮긴 뒤 처음 연출을 맡은 프로그램이다.

2022년 6월 방송을 시작한 ‘최강야구’는 해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시즌이 제작돼 현재 세 번째 시즌(2024 시즌)이 방송 중이다. 시즌별 최고

‘최강야구’·‘전팬구역’·‘야구대표자’ 등 프로야구 전례 없는 순위경쟁에 인기 TV·OTT 높은 화제성…신작도 봇물

시청률은 2022시즌 3.1%에서 2023시즌 3.6%, 2024 시즌 3.9%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은퇴한 스타 선수들이 다시 도전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최강야구’가 프로야구를 떠난 스타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는 것과 달리 ‘전팬구역’과 ‘야구대표자: 덕후들의 리그’(이하 ‘야구대표자’)는 야구를 좋아하는 팬들이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4~6월 방영된 ‘전팬구역’은 ENA와 유튜브 채널 ‘채널십오야’에 동시 공개된 예능으로, 첫 시즌은 한화 이글스의 팬인 연예인들이 출연해 경기를 보며 응원하는 모습을 담았다.

연예계에서 ‘골수 한화 팬’으로 잘 알려진 차태현과 인교진, 이장원, 한화의 4번 타자였던 김태균이 경기를 지켜보며 한화를 응원했고, 상대팀 팬인 연예인들이 게스트로 나와 응원전을 펼쳤다.

‘야구대표자’는 프로야구 온라인 중계권을 따낸 티빙의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로 21일 오후 첫 회를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은 10개 구단별로 1명씩 각 팀의 팬인 전직 야구선수나 연예인, 방송인 등이 출연해 야구 관련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내용을 담았다.

잇달아 야구 예능이 제작되면서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방송 진출도 자연히 늘고 있다.

‘최강야구’는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이택근, 장원삼, 유희관, 니퍼트 등 한국 프로야구의 스타였던 이들이 대거 최강 몬스터즈 선수로 출

연하고, ‘야신’(야구의 신) 김성근 감독이 팀의 사령탑을 맡고 있다.

트크소 형식의 ‘전팬구역’ 역시 한화 이글스에서 영구 결번(52번)을 남기고 은퇴한 김태균이 고정 출연했고, 게스트로 전 야구선수 조인성, 김병현 등이 등장했다. ‘야구대표자’ 역시 전 야구선수 윤석민, 이대호, 유희관이 고정 출연한다.

‘최강야구’가 올해 들어 특히 높은 인기를 얻고 ‘전팬구역’과 ‘야구대표자’와 같은 야구를 주제로 하는 토크 프로그램이 연달아 제작되는 것은 최근 프로야구의 흥행과도 맞물려 있다.

올해 프로야구는 전반기 일정을 마친 이달 4일을 기준으로 선두부터 최하위까지 승차가 13경기에 불과해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정도의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관중은 역대 최소인 418경기 만에 600만명을 돌파하며 대흥행을 기록했다. 이런 전반기의 관중 동원이 후반기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사상 최초로 1000만 관중을 넘기게 된다.

/연합뉴스



BTS 지민, 군복무에도 여전한 인기

솔로 2집 타이틀곡 ‘후’ 112개국 아이튠즈 1위

그들 방탄소년단(BTS) 지민(사진)의 솔로 2집 타이틀곡 ‘후’(Who)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3위를 차지했다.

21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이 노래는 19일 기준 790만1507회 재생돼 차트 상위권에 올랐다.

국가별 ‘데일리 톱 송’ 차트에서는 한국, 태국, 베트남 등 7개국 정상에 올랐다.

이 노래는 앞서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12개국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민의 솔로 2집 ‘뮤즈’는 일본 오리콘 ‘데일리 앨범 랭킹’ 정상에 오르며 일본 시장에서도 인기몰이에 나섰다.

‘뮤즈’는 자신을 둘러싼 영감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앨범이다. 타이틀곡은 만난 적 없는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애뜻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감정을 노래한 힙합 알앤비(R&B) 곡이다. /연합뉴스

맥 못추는 한국영화

‘하이재킹’·‘탈주’ 등 성수기에 100만명대서 고전에 피는 화제작 없어…다음주 개봉 ‘파일럿’ 관심

극작가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을 노리고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관객 100만명대 중반 수준에서 허덕이면서 이렇다 할 흥행작이 나오지 않고 있다.

개봉 대기 중인 ‘파일럿’ 등 네 편의 한국 영화가 다음 달부터 이런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이달까지 개봉한 한국 상업 영화 중 누적 관객 수 200만명을 넘긴 작품은 전무하다.

‘하이재킹’(약 170만명), ‘핸섬가이즈’(140만명), ‘탈주’(160만명) 세 편이 모두 비슷한 성적을 기록 중이다.

‘핸섬가이즈’는 손익분기점(110만명)을 넘겼고 ‘탈주’가 최근 박스오피스 1위에 복귀하며 손익분기점(200만명)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관객 수다. ‘하이재킹’은 평일 관객 수가 1만명대로 하락해 극장 매출로 손익분기점(300만명)을 달성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올여름 영화 가운데 가장 많은 제작비(185억원)가 투입된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이하 ‘탈출’)의 사정은 더 좋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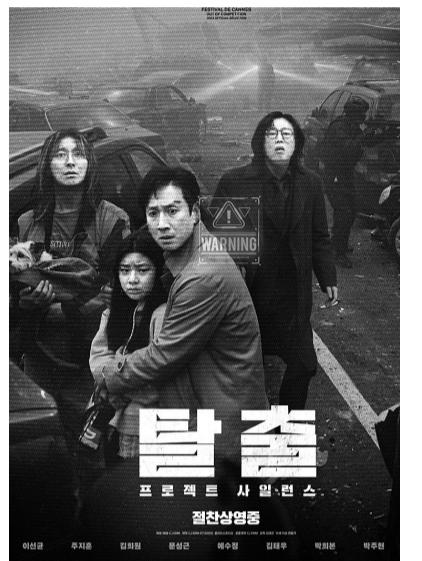
이 작품은 고(故) 이선균의 유작이자 대규모 재난 영화로 주목받았으나 개봉 후 일주일 동안 약 50만명을 모으는데 그쳤다. 관객 운집 속도도 빠르게 떨어져 박스오피스 5위까지 하락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올여름 극장가는 유난히 흥행작 탄생에 어려움을 겪는 양상이다. 코로나19 기간을 제외하고 ‘역대급’으로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여름만 해도 ‘밀수’(514만명)와 ‘콘크리트 유토피아’(384만명)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다.

영화계에서는 극장 산업이 가뜰이나 쪼그라든 상황에서 거의 매주 새로운 작품이 개봉하면서 관객을 나눠 갖게 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하이재킹’(개봉일 6월 21일), ‘핸섬가이즈’(6월 26일), ‘탈주’(7월 3일), ‘탈출’(7월 12일) 등은 짧게는 5일, 길게는 9일 만에 연달아 개봉했다. 한 작품이 관객몰이하기가 무섭게 새로운 영화가 극장에 걸린 셈이다.

관객을 잡아끌 만한 매력을 가진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200만 갈actic’의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이달 31일 개봉하는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파일럿’이 이런 흐름을 깨고 올여름 첫 한국 영화 흥행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드 아웃 2’를 포함한 기존 작품들의 흥행 동력이 떨어질 시점에 개봉하는 데다, 개봉일까지 또 다른 한국 신작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파일럿’에 유리한 대목이다. 최근 시사회에서 대체로 호평받았다는 점도 흥행 청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연합뉴스



Sky is unlimited

취업성공! 탁월한 선택!

항공 특성화 대학 초당대학교

www.cdu.ac.kr



- 항공특성화**
 - 항공운항학과
 - 항공정비학과
 - 항공모빌리티학과
 - 항공관광서비스학과
- 간호특성화**
 - 간호학과
 - 치위생학과
- 지역산업특화**
 - 스포츠경영지도학과
 - 뷰티디자인학과
 - 호텔조리베이커리학과
 - 군사학과
 - 사회복지상담학과
 - 소방행정학과
 - 의약관리학과
- 글로벌특성화**
 - 글로벌비즈니스학과
 - 글로벌신재생에너지학과
 - 글로벌실버케어학과
 - 글로벌조선학과
 - 글로벌화학기공학과
 - 국제학과